

영화 · 콘서트 보러갈까



●영화 '국가대표2' (10일 개봉 | 감독 김중현 | 주연 수애·오달수·오연서 | 126분 | 12세 관람가)

2009년 흥행작 '국가대표'의 2편. 한국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창단 과정을 모티브 삼은 휴먼 스토리. 수애와 오달수, 오연서, 하재숙, 김슬기 등이 이끄는 이야기는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에서부터 최연소 국가대표 등 다양한 캐릭터가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기까지 이야기를 그리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배우들은 촬영 전 매일 2시간에 걸친 고된 훈련을 받으며 링크 위를 내달렸다. 덕분에 박진감 넘치는 아이스하키 장면이 완성됐다.



●비스트 '2016 더 뷰티풀 쇼' (8월20일 오후6시·21일 오후5시 |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가 3집 '하이라이트' 발표를 기념하는 콘서트. '뷰티풀 쇼'는 비스트가 2012년부터 펼쳐온 브랜드 공연이다. 비스트는 작년 여름 이후 1년 만인 7월 세 번째 정규앨범을 냈다. 이번 공연에서 비스트는 특유의 감성적인 발라드와 파워 넘치는 댄스곡까지 두루 선사한다. 장현승이 탈퇴한 뒤 5인 조로는 처음이고, 올해 가을 현 소속사와 계약 만료를 앞둔 공연이라 더 관심을 끈다. 문의 1599-2005.



●넬 'C' (9월 3·4일 오후 7시 | 서울 광장동 에스24 라이브홀)

남성밴드 넬이 19일 새 앨범 'C'를 발표하며 펼쳐는 기념 공연. 앨범 발표 후 첫 콘서트인 이번 공연은 2년 만에 내놓는 새로운 앨범의 곡을 가장 먼저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새 앨범 'C'는 카오스(Chaos), 갈등(Conflict), 혼란(Confuse), 모순(Contradiction) 등을 뜻한다. 4월 '스페이스보헤미안'이란 독립레이블을 설립한 이후 선보이는 첫 작품으로, 넬 멤버들이 제작 전반을 기획, 진행했다. 문의 1544-1555.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 최현우의 매직컬 '더 설록'



'더 설록'은 명탐정 설록 홀즈로 분한 최현우(가운데)가 순간이동기술과 함께 사라진 살인범 제이슨을 추적하는 내용에 마술을 입힌 '최현우 표' 공연이다. 뮤지컬 사진제공 | 클립서비스

보고도 못 믿을 최현우표 마술 개그맨 뺨치는 거...웃음 폭탄 악당의 노래는 뮤지컬 넘버급

어려울 것이다. 사실 포기했다. 대신 나도 알아챈 것이 있다. 최현우 마술공연만의 특징이다.

●최현우 마술공연의 네 가지 특징

첫째, 최현우의 마술공연에는 '관객'이라는 마술상자가 하나 더 있다. 최현우 공연의 특징 중 하나는 체험과 소통이다. 최현우처럼 관객을 하나의 '도구'로 영리하게 활용하는 마술사도 드물 것이다. 적어도 최현우의 마술공연에서 관객은 수동적으로 박수만 치는 '인간 물개' 취급은 받지 않는다.

이번 매직컬 '더 설록' 역시 마찬가지다. 관객은 범인을 잡기 위한 중요한 키가 되는 상자를 보관해야 하고, 무대에 올라가 조수가 되어야 하는 한편 실제로 단체 마술에 참여해야 한다. 이 단체 마술(딱히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다)이 상당히 신기한데 매 시즌마다 조금씩 다르다. '더 설록'에서는 입장할 때 급직한 종이 한 장을 나누어 준다. 이 종이에에는 로마·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들의 이름이 잔뜩 적혀 있다. 여하튼 최현우와 함께 이 종이를 접고, 자르고, 뒤섞다 보면 정말 까무러칠 결과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웃음이다. 마술 공연장이 아니라 개그콘서트장에 들어온 것 마냥 웃음이 만발한다. 최현우에게는 마술사 못지

않게 개그맨의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닐까. 최현우처럼 개그감이 뛰어나고 표정연기가 다양한 마술사는 보지 못했다.

다음은 공연의 끊임없는 진화. '더 설록'은 지난 시즌에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공연의 경우 중간까지 다른 작품을 보고 있는 줄 착각이 들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설록이 범인을 추적한다는 콘셉트와 몇 개의 코너만 남겨두고 씩 다 바꾼 것 같았다.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것도 최현우 공연의 특징이다.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외국인 미녀조수들이 최현우의 공연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지만 다른 마술사의 공연과 같은 책사하고 은근한 분위기는 없다. 판타지와 로맨스 대신 뮤지컬, 드라마적인 요소를 잔뜩 넣었다. 이번 공연은 아예 매직과 뮤지컬을 합성한 '매직컬'이다. 실제로 극중 악당이 부르는 노래는 당장 뮤지컬 무대에 가져다 놔도 손색이 없는 당당한 뮤지컬 넘버로 들린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라기보다는 아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공연이다. 세 번 봐도 이렇게 재밌었으니 네 번을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전 그렇고 세 번을 봐도 통 모르겠다. 진짜 설록 홀즈가 객석에 앉아 있었어도 틀림없이 짜증을 낼 것 같다. "우씨, 도대체 맨 마지막에 ○○○는 어떻게 사라진 거야!"

생활경제부 기자 ranbi@donga.com

엄마 · 아빠 놀러가



●자라섬 불꽃축제 (12일~15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서,중도)

한 여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가족축제를 표방하는 행사로 올해 3회째다. 중도에서 펼쳐지는 메인공연인 퍼포밍 불꽃쇼'키스 더 춘향'을 비롯해 인디밴드공연, 비보이공연, 비트박스쇼 등이 펼쳐진다. 주간 이벤트로 열리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도전-물총싸움'은 기네스 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세계 최대규모 기네스 기록 도전 행사이다. '키스 더 춘향'은 축제 기간 4일 동안 매일 오후 7시40분부터 오후 9시까지 80분간 공연하는 각종특수효과와 첨단 연화장치를 이용한 세계 정상급 불꽃쇼다. 이밖에 최대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핑장도 조성돼 오토캠핑, 이지캠핑, 카라반 캠핑 패키지 중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고창 상하농원 삼시세끼 갯벌체험 (12~14일, 전북 고창)

전북 고창의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과 장호어촌마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이다. 체험 장소는 '삼시세끼-고창편'에서 차승원과 나영석 PD가 아이들처럼 뛰어다녀 화제를 모았던 곳. 갯벌 전문가, 상하농원 농부와 함께 후텁그물과 삼을 이용해 다양한 갯벌 생물을 잡고 관찰할 수 있다. 대형 트랙터를 타고 갯벌 위를 달려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대전 견우직녀축제 (13~14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견우직녀다리)

만남을 테마로 한 축제로 올해 11회째다. 시민참여 전통혼례 시연을 비롯해 리마인드 웨딩쇼, 우리학교 견우직녀, 여름밤 음악여행, 견우직녀 클럽파티 등의 행사와 프로포즈 이벤트, 오작교 청사총통 포토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프리마켓, 사진 콘테스트 등 사람과 만남을 주제로 한 상성 프로그램이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린다. 특히 14일 오후 8시30분부터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견우직녀 가요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50경기 넘긴 20대 파이터 “천연기념물급 기록? 내 삶의 일부”

나는 대한민국 파이터다

MAX FC 55kg이하급 김 상 재

20일 52번째 경기...윤덕재와 챔피언 "10년간 흘린 땀, 화끈하게 쏟아부었다"

우리나라 격투기선수 가운데 50차례 이상의 경기 경험을 한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UFC 웰터급의 김동현도 30차례 가까이 경기를 했고 스피릿MC부터 활동해왔던 TOP FC 미들급 챔피언 김재영도 30경기를 넘겼을 뿐이다.

놀랍게도 국내 입식타격 55kg 이하급에서 50경기를 넘긴 파이터가 있다.

천연기념물이다. 고등학교 시절 입식타격을 시작해 20대인 지금, 52번째 경기를 눈앞

에 둔 김상재(정의회관)다. 아버지의 영향 덕분이었다.

복싱을 수련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입식격투기를 접했다. 수련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링에 올랐다. 운명처럼 격투기가 다가온 것이다. 처음 링에 올라 패배를 맛봤다. 하지만 그 다음 경기부터 이겼다. 슬슬 재미가 붙었다. 재미와 재능, 둘 사이의 경계선은 애매모호하지만 고3 때 처음 챔피언이 됐다. 무에타이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이 되고 국제대회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상재의 이름이 입식격투가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우승했다. 당시 전적은 고작 4전 1승이었다. 토너먼트 결승에서 12차례의 전적을 쌓은 선수를 이기고 주목을 받았다"고 기억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자 더 경기에 몰두했다. 하루에 4~5시간 운동하며 한 달에 한 번꼴로

경기를 뛰었다. 모든 생활이 경기에만 맞춰져 있었다. "경기 끝나고 조금 쉬다가 다시금 경기 준비하고 링에 오르고, 그걸 몇 년 동안 반복했다. 나중에는 조금 지치기도 했다."

말이 한 달에 한 번 꼴의 경기라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았다. 지칠 만도 했지만 김상재는 10여년의 선수생활을 이어왔다. 50차례가 넘는 전적 가운데 패배는 고작 5번 뿐이다.

"이번 경기만 끝나면~"이라는 생각으로 지친 마음을 달랬다. 욕심이 많아서 패배를 싫어했고 경기 준비를 열심히 했다. 30경기 때부터는 이러한 생활이 인생의 일부가 됐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기가 오히려 자연스러워졌고 이제 익숙하다.(웃음)"

김상재는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뒀다. 20일 인천에서 열리는 MAX FC 55이하급 챔피언전에서 신예 윤덕재와 대결을 펼친다. 55kg 이하급의 일인자와 차세대 도전자

의 대결이다. 관심이 높은 경기다.

"지금까지 했던 경기보다 훨씬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윤덕재 선수는 친한 동생이자 경쟁자다. 나도 윤덕재 선수도 치열한 경기를 할 것이다. 그동안 흘린 땀이 무색하지 않도록 화끈하고 시원한 경기를 펼쳐 보이겠다."

이미 50차례 경기경험을 넘어섰고 MAX FC의 벨트까지 갖게 된다면 국내 입식타격55kg 이하급에서 김상재의 위치는 누구보다 확고해진다. 만일 김상재가 이번 경기에서 챔피언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지금은 챔피언이 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챔피언이 되면 일단은 쉬고 싶다. 만약 해외 유명대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의가 온다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챔피언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다."

정성욱 객원기자·랭크5편집장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국내 입식타격 55kg 이하급 최강자 김상재(오른쪽)가 상대를 향해 킥을 날리고 있다. 20대의 나이에 격투기 통산전적 50회를 넘긴 천연기념물 같은 선수다. 사진 | 정성욱 객원기자·랭크5편집장